보도시점 2026.11.11.(수) 09:00 배포 2026.11.11.(수) 08:30

지식재산처, 특허료 자동납부 은행 확대

- 주요 4개 은행과 특허료 자동납부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추가하여 6개 은행으로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1.(수)부터 고객이 특허수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은행을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추진으로 기존 농협과 기업은행 외에 주요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이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은행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장과 지식재산처장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26.11월) 했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제도는 지식재산처에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누리집에 접속할 필요 없이 납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특허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납부되는 제도이다.

특허고객의 자동납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지식재산처에 납부된 전체 수수료의 약 15%가 자동납부를 통해 처리될 만큼 대표적인 납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기타 보정료 등 1회성 수수료뿐만 아니라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도 사전에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과 내역 조회는 지식재산 통합 포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자동납부를 통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신청 여부 및 자동납부 횟수에 따라 차후 수수료 납부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점수를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자동납부 은행 확대 추진으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더욱 손쉽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상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규동 (042-481-5460)
		담당자	주무관	윤가영 (042-481-8756)